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이미리**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인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 변인들이 자아존중감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자아평가 정도와 부정적인 자아평가 정도의 두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자아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평가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가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종단적 연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2004년도 참여 패널인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생 3509명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가 적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수준이 적을수록 자신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 중학생, 긍정적 자아 평가, 부정적 자아 평가,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 한국청소년패널연구 학술제에 구두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체육대학교 청소년지도학전공

I.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context)으로는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을 꼽을 수 있다(Steinberg, 1993). 생태학적 관점의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타고난 발달적 특성과 그 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맥락들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응과 부적응을 설명하고 있는데(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분석에 의해 제시된 정보는 청소년기 적응을 촉진하고 부적응을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효과적이다. 인간 발달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맥락의 종류는 개인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미시체계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외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Bronfenbrenner, 1979),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을 포함하는 청소년기 주요 미시체계 변인들과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기초가 되며 필수적인 심리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을 말한다(Harter, 1993: Rosenberg, 1979). 자기를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즉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김애경, 2001),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도덕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고 창의적이다(김희화, 김경연, 2000: 현희순, 김양순, 1999). 주위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한다(김희화, 2002: 심응철, 1992: 심희옥, 1998: 이경남, 2002). 성취동기 수준이 높으며(홍성훈, 도현심, 2002) 자신감이 있다(강기정, 정은미, 2003).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증, 학교생활 부적응, 집단 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남용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심희옥, 1997: 양종국, 김충기, 2002: 유성경

외, 2000; 최은영, 최인령, 2002).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주로 긍정적 발달보다는 부적응 발달 현상에 관심을 집중해왔고 이 때문에 긍정적인 발달이 부적응의 문제가 없는 상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소홀해 왔다(이미리, 2003; Aspinwall & Staudinger, 2003). 자아존중감의 측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일 차원의 양극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중에서 “1.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고 “9.나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차원으로 고려하여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거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수준이 낮은 것과 긍정적인 평가 수준이 높은 것을 한 차원의 다른 수준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다(Larsen & Ketelaar, 1991; Watson, 1988).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서로 다르며(Larsen & Ketelaar, 1991) 때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다(Harter & Buddin, 198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독립적 차원으로 분석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최근 긍정적 심리학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심리학이 관심을 두어왔던 인간의 부적응적 발달과 병리에 대한 연구결과로

는 불충분하며 인간의 긍정적 발달, 잠재력, 그리고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Aspinwall & Staudinger, 2003). 왜냐하면 부적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긍정적 발달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독립된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자아에 대한 평가 수준이 청소년기 주요 미시체계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로 가족과 친구 변인을 분석하고 있다. 가족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 감독, 부모와의 관계, 형제 관계 등의 기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한부모가족 여부 등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을 하고 자녀와 친밀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김애경, 2003; 김정연, 1993; 손화희, 윤종희, 1990; Farrel & Barnes, 1993). 그러나 부모의 감독(monitoring)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다.(김정연, 1993; 박선영, 도현심, 1998; 박영애, 정옥분, 1996; 이숙, 최정미, 2003; 천희영, 옥경희, 김미해, 2001). 형제관계 특성도 부모의 양육 행동과 상호작용적으로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계를 보이는데 부모의 양육 행동이 온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형제간 갈등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확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박영애, 정옥분, 1996).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도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보이는데 가족

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즉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가구의 경제적 소득이 많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손원숙, 1994; 조성연, 1997; 현희순, 김양순, 1999; 홍순혜, 2004). 한편,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는 청소년과 양친 가족에서 자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오승환, 2001; 홍순혜, 2004). 청소년기 친구 변인과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괴롭힘을 당하느냐는 것은 자아존중감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는 주요변인이었다(김희화, 김경연, 1998; 이숙, 최정미, 2003; 이은진, 2004; 이현림, 최현주, 2003; 최미경, 도현심, 2000; 최정미, 김미란 2003; 한중혜, 1996).

가족과 친구 변인 이외에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맥락으로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변인 역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학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시험불안 증세가 자존감 발달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성중호, 이영식, 이길홍, 1999)와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생활 중 수업참여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들을(도현심, 신정님, 1999) 고려해 볼 때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은 자아존중감 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여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아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이다(Iso-Ahola & Crowley, 1991).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중 스포츠 활동과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자아성취감 발달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안정일, 김재현, 2002; 윤만수, 강진홍, 2001; 이진갑, 2002;

조연철, 최창석, 2001: 허정식, 199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 볼 때 여가 변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청소년기 직업 관련 변인도 자아개념의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청소년기 직업의 선택은 자아개념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Super, Savickas, & Super, 1996) 청소년기 진로성숙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김충기, 김현옥, 198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이 자아존중감 발달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이 변인들 중에서 한, 두 가지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갖는 상대적인 관련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주요 맥락은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이며 이들 맥락은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Bronfenbrenner, 1979: Steinberg, 199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 변인들이 자아존중감과 갖는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어느 변인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인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수준은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양원경, 1999: 이숙, 최정미, 2003: Nottleman, 1987: Kling, Hyde, Shower, & Buswell, 1999). 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의 내용이 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학동기 딸의 자아개념 발달과는 상관이 있으나 아들의 자아개념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음이 보고되거나(문현선, 1984), 청소년기 딸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고 아들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자율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Gecas & Schwalbe,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성차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남, 여 별로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가족, 친구, 학교, 여가, 직업 변인의 상대적인 관련성은 어떠한가?
- 2)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가족, 친구, 학교, 여가, 직업 변인의 상대적인 관련성은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개발원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하는 종단적 연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2004년도 참여 패널인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생 3509명이다(남학생 1755명, 여학생 1754명). 이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전체의 94%가 부모가 계시고 90%가 함께 살고 있다. 반 정도의 학생들이 한명 혹은 그 이상의 형제가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46%, 여학생은 62%가 동생이 있다. 부모의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의 36%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39%가 사무직에서 전문직에 이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영업에 포함하여 기술직, 서비스직, 그리고 일일근로직에 종사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69%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24%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아버지는 51%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44%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939,200원으로 2004년 2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2,970,948과 거

의 같은 수준이다. 자녀에게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60,700원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위해 청소년개발원(2004)에서 개발한 질문지에 포함된 척도와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을 측정할 척도와 문항의 내용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인: 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이다. 평정치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는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도록 채점되었다. 즉, 점수가 높으면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고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다. 척도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을 위해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의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모델을 적용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하위 요인들 간 상관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각회전(oblimin rotation)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Eigen값이 1 이상인 요인으로 결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두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두 요인은 자아존중감 척도 전체 변량의 55%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는 문항의 내용과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α 로 산출한 신뢰도는 전체 .73, 긍정적 자아평가 요인 .80, 부정적 자아평가 요인 .75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1〉 자아존중감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항내용	I. 긍정적 자아평가	II. 부정적 자아평가	h^2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51	.215	.726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18	.271	.669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04	.213	.366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29	.747	.559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49	.694	.486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303	.692	.488
Eigen 값	1.925	1.684	
변량원(%)	36.23	18.67	

2) 독립변인: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

본 연구에서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독립변인은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과 청소년 스트레스 변인이다. 청소년 스트레스는 이들 각 맥락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독립변인들의 수가 많고 측정수준도 다양하여 청소년 스트레스를 제외한 독립변인들을 맥락별로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독립변인들 중에서 단일 문항이 아니라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된 변인은 척도의 신뢰도를 본문에 제시하였다.

〈표 2〉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의 내용

맥락	독립변인
가족	1.부모 유무, 2.부모와의 동거 여부, 3.형제 유무 4.어머니 취업 여부, 5.아버지 직업 수준, 6.부모 학력 7.가구 월평균 소득, 8.부모에 대한 애착, 9.부모의 감독 10.부모의 폭력, 11.부모와의 대화 정도
친구	1.친한 친구 수, 2.친한 친구를 만나는 빈도 3.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
학업	1.학교에서 전교 등수, 2.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는 정도 3.일주일 평균 혼자 공부하는 시간 4.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인지 수준
여가	1.학기 중 평일하루, 토, 일요일 합산 여가시간 2.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3.여가만족도
직업	1.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학기 중 평일 하루, 토, 일요일 합산 직업 관련 활동 시간 3.장래희망 직업 결정 여부, 4.직업성숙도 6.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7.직업가치관

(1)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를 재는 문항은 총 6문항으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정도, 부모님이 사랑을 보이는 정도, 대화를 자주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며 5점 평정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척도치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6$ 로 산출되었다.

(2) 부모의 감독

부모의 감독(monitoring)은 자녀의 활동과 적응, 그들이 가는 곳에 대해 알고 추적하는 일련의 부모 행동으로(박진경, 도현심, 2001: 천희영, 김미해, 옥경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며 언제 돌아올지 아는 정도로 부모의 감독

수준을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치의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와 동일하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로 산출되었다.

(3) 부모의 폭력

부모의 폭력 척도는 부모님이 서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자녀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묻는 4개의 Likert식 5점평정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폭력 수준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도록 채점되었다. 척도치는 위와 동일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8으로 산출되었다.

(4) 친구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 척도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정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정도, 친구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정도, 그리고 고민을 솔직하게 말하는 정도를 묻는 4개의 Likert식 5점 평정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치는 위와 동일하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6으로 산출되었다.

(5) 직업성숙도

직업성숙도는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개인의 발달 정도 즉 준비도를 재는 척도로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아는 정도,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정도, 장래 직업을 선택한 정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부모와 자신의 의견을 절충하는 정도를 묻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되어있으며 척도치는 위와 동일하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58로 산출되었다.

(6)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이란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다(박보경, 이종승, 2002). 직업가치관 척도는 어떤 직업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장래 희망 직업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총 15개의 Likert식 5점 평정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치는 위와 동일하다.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의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모델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은 1)부와 명예를 추구, 2)창의성 추구, 3)안정된 근무환경 추구, 4)사회성 추구로 분류되었다. 네 요인 중 어떤 요인이든 .40이상으로 부하되지 않은 문항 3개는 삭제되었다. 이들 네 요인은 직업가치관 전체 변량의 36.7%를 설명하였다<부록1참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하위요인의 순서대로 Cronbach α 값이 각각 .78, .63, .63, .48로 산출되었다. 이들 네 하위요인 중 네번째인 사회성 추구 요인은 두 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신뢰도가 낮아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독립변인에서는 제외하였다.

(7)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는 청소년기에 가족, 친구, 학업, 여가 맥락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청소년기 주요 발달 맥락과 관련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장을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척도치는 1. 그런 적 없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부모, 외모 및 여가, 친구,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 요인은 스트레스 척도 점수 전체 변량의 54.57%를 설명하였다<부록2참조>.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산출한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α 는 .88이다.

3. 자료의 분석 절차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을 사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남, 여 따로 실행하였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수준에 있어서 남, 여 차이가 있음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의 관련 변인이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WIN 11.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기술적 결과

남,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은 남, 여학생 모두 ‘보통이다’와 ‘그런 편이다’ 사이의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의미 있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보통이다’ 사이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표 3〉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의 기술적 결과와 성차

자아존중감	집단	남학생(n=1755)		여학생(n=1754)		t
		M	SD	M	SD	
긍정적 자아평가		3.121	.752	3.100	.734	.836
부정적 자아평가		2.723	.844	2.855	.813	4.665***

*** P<.001

2. 긍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업, 직업, 여가 변인의 관계

먼저,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맥락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앞의 <표2>에 제시된 독립변인들을 투입하여 단계적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한 결과 7개 변인이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단계적회귀분석의 최종 7단계에서 산출된 독립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와 공차를 <표4>에 제시하였다. <표4>에 제시된 각 독립변인들의 공차(tolerance)를 살펴보면 .72에서 .95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가정 중의 하나인 잔차의 독립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산출된 Durbin-Watson지수가 1.95로 2에 접근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표4>에 의하면 중학교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부와 명예 추구 직업 가치관,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부모의 감독수준,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근무환경 추구 직업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자신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인지할수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클수록, 부와 명예를 가져

다주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잘 알고 있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7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변량의 20%를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표 4〉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 (n=1755)

독립변인	β	tolerance	Total R ²
1)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199***	.854	
2)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98***	.908	
3) 부와 명예 추구 직업 가치관	.104***	.920	
4)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093**	.720	
5) 부모의 감독 수준	.071*	.739	
6)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061*	.953	
7) 근무환경 추구 직업 가치관	.058*	.924	
			.198***

* P<.05 ** P<.01 *** P<.001

주.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제시하였음. Durbin-Watson 지수는 1.952임

여학생들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 단계에서 산출된 독립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와 공차를 제시하였다. 각 독립변인들의 공차를 살펴보면 .74에서 .99로 중다회귀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지수도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 있다.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부와 명예 추구 직업 가치관,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스트레스, 직업성숙도, 친한 친구 수, 전교 등수, 창의성 추구 직업 가치관, 근무환경 추구 직업 가치관, 여가만족도의 11개 변인이었다.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독립변인간의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자신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인지할수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클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직업성숙도가 높을수록,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학교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자유롭고 창의적인 직업을 희망할수록,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그리고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11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

〈표 5〉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 (n=1754)

독립변인	β	tolerance	Total R ²
1)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177***	.744	
2) 부와 명예 추구 직업 가치관	.149***	.896	
3)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116***	.747	
4)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14**	.831	
5) 스트레스	-.101**	.799	
6) 직업성숙도	.085**	.882	
7) 친한 친구 수	.075**	.989	
8) 학교에서의 전교 등수	-.088**	.718	
9) 창의성 추구 직업 가치관	.067**	.943	
10) 근무환경 추구 직업 가치관	.059*	.879	
11) 여가만족도	.057*	.862	
			.265***

* P<.05 ** P<.01 *** P<.001

주.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제시하였음. Durbin-Watson 지수는 2.019임

3. 부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업, 직업, 여가 변인의 관계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수준이 낮은 정도를 통해 평가해보고자 한 것이다.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투입된 모든 독립변인들 중에서 8개 변인이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에 제시된 각 단계 중에서 최종 단계에서 산출된 독립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와 공차를 제시하였다. <표6>에 제시된 각 독립변인들의 공차를 살펴보면 .84에서 .97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 지수도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스트레스,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여가만족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직업성숙도의 7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클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이 적을수록,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수준이 적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 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인지할수록, 직업성숙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적게 하였다. 이상의 7개 변인이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변량의 23%를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을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의 공차는 .85에서 .98로 중다회귀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 지수도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들은 스트레

스,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부모의 감독 수준, 부 직업 수준의 5개 변인이었다.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클수록,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수준이 적을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적게 하였다. 이상의 5개 변인이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변량의 24%를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표 6〉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 (n=1755)

독립변인	β	tolerance	Total R ²
1) 스트레스	-.336***	.842	
2)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26***	.868	
3)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101***	.963	
4)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098**	.905	
5) 여가만족도	.074**	.931	
6)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061*	.895	
7) 직업성숙도	.060*	.869	
			.233***

* P<.05 ** P<.01 *** P<.001

주.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제시하였음. Durbin-Watson 지수는 1.904임.

〈표 7〉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 (n=1754)

독립변인	β	tolerance	Total R ²
1) 스트레스	-.370***	.846	
2)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12***	.937	
3)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097***	.847	
4) 부모의 감독 수준	.078**	.879	
5) 부 직업 수준	.065*	.982	
			.235***

* P<.05 ** P<.01 *** P<.001

주.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제시하였음. Durbin-Watson 지수는 1.943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인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 변인들이 자아존중감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자아평가 정도와 부정적인 자아평가 정도의 두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자아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평가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가정하였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로 가족과 친구 변인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과 함께 학업, 여가, 직업 변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가족과 친구 변인 못지않게 학업, 직업, 여가 변인의 영향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친구, 학업, 직업, 여가 변인이 자아존중감과 갖는 관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청소년의 성별과 자아존중감 측정 요인이 긍정적 자아평가인가 부정적 자아평가인가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업, 직업, 그리고 여가 변인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달랐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과 부모의 감독 수준, 친구 변인 중에서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 학업 변인 중에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는 정도, 그리고 직업 변인 중에서는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성취 확신, 부와 명예 추구 직업가치관, 근무환경 추구 직업가치관이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친구 관련 변인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김애경, 2003; 김경연, 1993; 손화희, 윤종희, 1990; 이숙, 최정미, 2003; 이은진, 2004; 이현립, 최현주, 2003; 최미경, 도현심, 2000; 최정미, 김미란 2003) 또한 가족과 친구 관련 변인

이 갖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성을 학업, 여가, 직업 등의 변인들의 관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업과 직업 관련 변인들이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맥락 변인들의 영향을 보면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 친구 변인 중에서 친한 친구의 수, 학업 변인 중에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는 정도, 학업 성적, 여가 변인 중에서는 여가만족도, 직업 변인 중에서는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성취 확신, 부와 명예 추구 직업가치관, 창의성 추구 직업가치관, 근무환경 추구 직업가치관, 직업성숙도, 그리고 스트레스가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긍정적 자아평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었으나 긍정적 자아평가를 의미있게 설명한 변인들을 보면 직업 관련 변인의 수가 더 많아서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자아평가에 대해 직업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족, 친구 관련 변인보다 더 큰 경향을 보인다. 긍정적 자아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직업가치관, 직업 변인이 상대적으로 가족과 친구 관련 변인 보다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청소년기 부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업, 직업, 그리고 여가 변인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긍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다른 점은 남, 여 학생 모두 부정적인 자아평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스트레스라는 것과 여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평가에 대해 설명력이 있는 변인들인 학업과 직업 관련 변인들의 영향이 부정적인 자아평가에 대해서는 그리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은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의 폭력 행동 수준, 친구 변인 중에서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 학업 변인 중에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는 정도, 여가 변인 중에서는 여가만족도, 직업 변인 중에서는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성취 확신, 직업성숙

도, 그리고 스트레스가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 변인들 중에서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스트레스였는데 흥미롭게도 스트레스가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과는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자아평가 수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긍정적인 자아평가 수준과는 독립적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맥락 변인들의 영향을 보면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의 폭력 행동, 부모의 감독, 아버지의 직업, 직업 변인 중에서는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성취 확신, 그리고 스트레스가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한 변인은 스트레스였는데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보다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내용이 주로 직업 변인이었으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은 주로 가족 변인이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느냐 부정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나 관련 변인의 내용이 달랐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일 차원의 양 극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하며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가족 혹은 친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 맥락인 학업, 여가, 직업 관련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가족과 친구의 영향 못지않게 때로는 더 의미 있게 학업을 비롯한 여가, 직업 관련 요인들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관계 뿐 아니라 여가나 직업 맥락적 관

점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는 맥락 변인들의 종류가 남, 여학생 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 주요 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가 적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수준이 적을수록 자신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 정은미(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1호, pp.172-187.
- 김경연(1993).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6권 제1호, pp.37-50.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2권 제3호, pp. 271-285.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지지와 내의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제10권 제3호, pp.351-372..
- 김충기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직업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143-150.
- 김희화(2002).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친구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9호, pp.47-61.
- 김희화 · 김경연(1998). 개인적요인 및 환경적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2호, pp.47-60.
- 김희화 ·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pp.15-24.
- 도현심 · 신정님(1999). 교사폭력과 남자중학생의 학교생활의 질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교사교육학연구, 제3권 제1호, pp. .
- 박보경 · 이종승(2002). 직업성격유형과 적성 및 직업가치관의 관계. 교육발전논집, 제23권 제2호, pp.59-83.
- 문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

- 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영·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9권 제1호, pp.229-244.
- 박영애·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89-212.
- 박진경·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pp.129-140.
- 성중호·이영식·이길홍(1999). 청소년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신경정신의학, 제38권 제3호, pp.571-582.
- 손원숙(1994). 주관적 연령지각과 자아개념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화희·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1권 제1호, pp.58-71.
-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6호 pp.133-144.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제19권 제2호, pp.35-48.
- 안경일·김재현(2002). 스포츠 여가 활동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한국학교체육학회지, 제12권 제1호, pp.61-73.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종국·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

- 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10권 제2호, pp.101-121.
-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2권 제17호, pp.77-82.
- 유성경 · 이소래 · 송수민(2000).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만수 · 강진홍(2001). 스포츠 활동 참가가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73-183.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8호, pp.191-206.
- 이미리(2003). 청소년 행복감 수준과 일상생활경험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5권, 제1호, pp.26-34.
- 이숙 ·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2호, pp.31-42.
- 이은진(2004). 구조화된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분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3호, pp.354-361.
- 이진갑(2002). 청소년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자기표현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제3호, pp.115-128.
- 이현림 · 최현주(2003).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291-308.
-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존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pp.45-58.
- 조현철 · 최창석(2001). 청소년의 여가 스포츠 참가와 자아효능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5권, pp.213-221.
- 천희영 · 옥경희 · 김미혜(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

- 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 능력지각.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0호, pp.153-168.
- 최미경·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제21권 제3호, pp.85-92.
- 최은영·최인령(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5권 제1호, pp.63-72.
- 최정미·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373-394.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관계방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식(199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 유형 및 관련변인들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9권 제1호, pp.133-144.
- 홍성훈·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12호, pp.145-157.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17권, pp.151-161.
- 현희순·김양순(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제20권 제1호, pp.249-262.
- Aspinwall, L.G. & Staudinger, U.M.(2003). *A psychology of human strength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arrell, M. P., & Barnes, G. M.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5 No.1, pp.119-132.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8 No.37, pp.37-46.
- Harter, S. (1993).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Y: Plenum Press.
- Harter, S. & Buddin, B.J.(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five-stage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3 No.3, pp.388-399.
- Iso-Ahola, S. E., & Crowley, E. D.(1991). Adolescent substance abuse and leisure boredo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3 No.3, pp.260-271.
- Kling, K. C., Hyde, J. S., Showers, C. J., & Buswell, B. N. (1999).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5 No.4, pp.470-500.
- Larsen, R.J & Ketelaar, T.(1991).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1, pp.132-140.
- Nottelman, E. D. (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3, pp.441-450.
- Rosenberg, 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Inc.
- Steinberg, L. (1993). *Adolescence*. NY: McGraw-Hill, Inc.
- Super, D.E., Savickas, M.L., & Super, C.M. (1996). The life 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pp.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Watson, D.(1988).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analys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their relation to health complaints, perceived stress and daily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No.6, pp.1020-1030.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번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부록 1. 직업가치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I. 부와 명예 추구	II. 창의성 추구	III. 안정된 근무 환경	IV. 사회성 추구	h ²
2. 권력이 많음	.856	.000	-.078	-.018	.675
3. 사회적 명예가 높음	.763	-.008	.011	.079	.627
1.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600	.047	.033	-.036	.370
11. 아이디어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 많음	-.029	.647	-.087	.141	.481
10. 반복적이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109	.607	.034	.001	.401
9. 업무의 자유 재량권 많음	.197	.460	.207	-.046	.355
15. 학력이 높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110	.439	-.049	-.011	.195
5.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054	.021	.630	-.011	.432
6.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010	-.138	.627	.158	.424
4. 시간적 여유가 많음	-.023	.103	.530	-.151	.292
13.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	-.045	.075	-.093	.511	.275
12.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188	.208	-.033	.409	.345
Eigen 값	2.251	1.777	1.742	1.367	
변량원(%)	18.89	9.73	5.41	2.67	

부록 2. 청소년 스트레스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I. 부모	II. 외모 및 여가	III. 친구	IV. 학업	h^2
3. 부모의 지나친 간섭	.816	.017	.052	.070	.746
2. 부모와 의견 충돌	.764	.060	.034	.112	.720
4. 부모와 대화가 안됨	.698	.103	.102	.023	.591
1. 성적 때문에 부모와 갈등	.495	-.071	.025	.392	.546
15. 멋있는 옷을 못 입음	-.007	.780	-.012	.012	.606
16. 용돈이 부족	.224	.749	-.085	-.099	.582
17. 갖고 싶은 물건을 못가짐	.211	.682	-.062	-.027	.534
14. 얼굴생김새	-.115	.590	.145	.136	.502
12. 몸무게	-.131	.487	.135	.104	.343
13. 키	-.101	.451	.109	.104	.291
10. 친구의 인정을 못받음	.055	-.051	.935	-.042	.822
9. 친구의 놀림과 무시	.047	-.008	.785	-.050	.595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022	.098	.638	.051	.505
6. 숙제와 시험	-.039	.006	-.038	.758	.535
5. 학교성적	.153	-.011	.012	.646	.529
8. 공부가 지겨움	.029	.085	-.025	.612	.455
7. 대학입시와 취업에 대한 부담	.016	.018	.036	.582	.373
Eigen 값	3.334	3.582	2.932	3.754	
변량원(%)	32.11	11.03	6.64	4.79	

ABSTRACT

Relationships of Self-Esteem with Family-, Friend-, School-, Leisure-, and Job-Related Variables in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Positive and Negative Self Evaluations

Lee, Mee-Ry*

This study investigated relationships of family, friend, school, leisure, and job related variables with self-esteem. Self-esteem was independently measured into two factors: positive self evaluation and negative self evaluation. Participants were 3509 middle school juniors which were the 2004 panel of Korea Youth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This study found that parent attachment, degree of eagerness in school class, confidence in achievement of future job, values of job, and stress were related with adolescent positive evaluation of self. Stress, confidence in achievement of future job, and parent violence were related with adolescent negative evaluation of self.

Key Words : early adolescence, positive self-evaluation, negative self-evaluation, family, friend, school, leisure, job

투고일 : 10월 30일, 심사일 : 12월 5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